

종광대2구역 ‘현지보존’ 보상 절차 돌입

전주시,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서 발견된 ‘후백제 성벽 유적’ 현지보존 결정 따라 조합과 협의해 보상 진행

전주시 인후동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후백제 성벽 유적이 현지보존되고,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전주시는 후백제 시기 도성으로 추정되는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의 보존방안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매장분과 회의에서 조건부가결(현지보존)이 나오에 따라 조합과 협의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종광대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부지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시굴·정밀 발굴 조사를 통해 자연 지형을 활용한 토축 성벽 200여 미터가 발견됐다. 이는 1942년 출간된 ‘전주부사’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표기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이어서 역사성을 더하고 있다.

정비사업 부지 내 매장 유산이 현지보존으로 결정되면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매장 유산의 보호를 위해 중단된다. 시는 조합과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무산에 따른 투입비용과 조합원에 대한 보상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특수성을 고려하고, 관련 사례도 드문 만큼 감정평가·법률·회계·도시정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의한 보상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해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보상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행정절차와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진행

되며, 시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해당 유적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후백제 왕도 전주를 대표하는 핵심공간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후백제 전주 도성에 대한 흔적이 발견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지보존으로 결정됐다”면서 “조합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합과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종광대2구역 ‘현지보존’에 따른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보’ 무료 우편 발송

각종 의정 소식 수록… 누구나 구독 신청하기 가능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4일 의원들의 각종 의정 활동 내용을 담은 ‘전주시의회보’에 대한 무료 우편 발송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회보 무료 우편 발송 서비스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전주나 전주시의회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의회 홈페이지 ‘전주시의회 의회보 구독 신청하기’ 코너를 통해 1인당 2부 이내에서 가능하다. 의회보는 1년에 두 차례 발행하고 있으며, 의회 연례부터 의원·원구성 현황, 각 상임위원회·의원연구단체 활동 사항, 청사 안내, 회기 운영 계획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시의회보 무료 우편 발송을 통해 시민들이 의



회에 더 관심을 갖고 효과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경영 수지 향상 방안 모색

보고회 갖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경영수익 향상 등 위한 개선 방안 도출해 적용키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 수지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단은 4일 임원진을 비롯한 간부들과 팀장급 직원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 수지 향상 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부서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브랜드 발굴과 수지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경영수익 향상, 고객 만족을 위한 부서별 주요사



전주시설공단은 4일 임원진을 비롯한 간부들과 팀장급 직원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 수지 향상 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업 발굴,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경영수익 증대, 고객만족경영 고도화 등의 목표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시설 운영에 적극 적용키로 했다. 이날 보고회는 공식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리다. 공단은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업으로서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각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업의 계속성, 향상성이 중요한 만큼 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익성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2025년 대도약과 대혁신에 걸맞게 경영혁신에 힘쓰고, 목표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는 4일 시청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력 찾아가는 전주형 독네복지 추진

전주시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전주시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는 4일 시청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참석해 △2025년 사업계획 △지역사회 내 복지욕구 해결방안 △지역자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35개 동에는 54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내 알리고, 보살피는 인적안전망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전직진 연합회장은 “임원진과 함께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호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과 다양한 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알리는 중요한 조직”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인후3동 지사협, 대학교 새내기 가정에 장학금 지원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백병람)는 4일,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국승기)와 함께 새 학기를 맞아 더욱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달했다.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이 있는 가정 10세대에 각각 문화상품권 2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문화상품권은 새 학기를 맞아 대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

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지원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여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백병람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미래의 희망인 대학 새내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 없이 다함께 행복한 인후3동을 만들기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일,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새 학기를 맞아 더욱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달했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